
일반논문

영조(英祖)의 소설 애호와 그 의의

김 수 영*

[국문초록]

이 논문에서는 영조 연간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의 소설 관련 기사를 통해 ‘소설 애호가’로서의 영조(英祖, 1694~1776)의 일면을 좀 더 깊이있게 밝히고, 그 소설사적 의의를 탐구하였다. 이 논문에서 밝힌 주요 사실은 다음과 같다.

영조는 선행연구에서 밝혀진 것 외에도 『삼국지연의』, 『서유기』, 『동한연의』, 『서한연의』, 『평요전』 등의 소설을 읽었다. 특히 영조는 당시 조선에서 ‘삼대기서’(三大奇書)로 일컬어진 『서유기』·『삼국지연의』·『수호전』을 즐겨 읽었으며, 그중에서도 『삼국지연의』를 숙람했다. 종합컨대 영조는 『구운몽』과 같은 한국소설을 읽었으며, 연의소설(演義小說), 문언소설(文言小說), 신마소설(神魔小說), 인정소설(人情小說) 등 다양한 장르에 속하는 중국소설 또한 두루 읽었다.

영조는 소설의 가치와 효용을 긍정하였다. 소설에 대한 영조의 긍정적 인식은 일찍이 연잉군(延昞君) 시절부터 형성된 것으로 보이며, 국왕으로 재위한 50여 년 동안 영조는 줄곧 소설을 애호하였다. 영조는

* 서울시립대 국어국문학과 조교수

주제어: 영조, 『승정원일기』, 소설, 소설 향유, 공적 의미망, 18세기
King Yeongjo (英祖), novel, enjoyment of novels, *Seungjeongwonilgi* (承政院日記, journal of the Royal Secretariat), 18th century

몸이 아플 때나 밤늦도록 잠을 이루지 못할 때 소설을 통해 위안을 얻었다. 뿐만 아니라 영조는 종종 소설의 내용을 정치적 사안과 연결해 말했으며, 소설의 내용을 국정 운영의 참고 자료로 삼기도 하였다. 이처럼 영조의 소설 향유는 사적(私的) 차원에 그치지 않고 통치 행위와 관련해 공적 의미를 획득하였던바, 이 점이 대단히 문제적이다. 이러한 사실에 근거해 볼 때, 영조의 소설 애호는 당대 상층의 소설 향유 문화에 일정 정도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 점과 관련해 영조가 읽은 소설들이 사도세자의 『중국소설회모본』(中國小說繪模本)에 수록된 소설 목록 및 윤덕희의 ‘소설경람자’(小說經覽者)에 수록된 소설 목록과 상당 부분 공통되어 주목을 요한다.

지금까지 조선 후기 상층의 소설 향유 문제는 주로 경화사족(京華士族)으로 대표되는 왕실 밖의 상층 사대부 중심으로 논의되어 온 경향이 있다. 하지만 영조의 사례로 볼 때, 이제 국왕을 위시한 왕실의 소설 향유 문제를 아울러 고려하는 시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1. 머리말

조선의 제21대 국왕 영조(英祖, 1694~1776)는 ‘소설 애호가’였다. 이 논문은 영조 연간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를 통해 영조의 소설 향유 양상을 고찰함으로써 ‘소설 애호가’로서의 영조의 일면을 좀 더 깊이있게 밝히고, 그 소설사적 의의를 탐구하는 데 목적이 있다. 영조의 소설 애호에 대한 논의는 근래 양승민에 의해 처음 이루어졌다. 양승민은 『승정원일기』의 소설 관련 기사를 변증(辨證)하는 과정에서 영조가 『구운몽』(九雲夢)에 대해 호평하고 『남계연담』(南溪演談)에 관심을 가진 사실 등을 밝혔다.¹⁾ 양승민의 논문은 『승정원일기』 기사를 중심으로 국왕의 소

1) 양승민(2004), 「『承政院日記』 소재 소설 관련 기사 변증」, 『古典文學研究』 26, 한국고전학회.

설 향유 문제를 고찰한 것으로서 이 방면 연구의 선편(先鞭)을 잡은 의의가 있다. 또한 그 연구에서 해명된 영조의 소설 향유 양상 역시 특기할 만한 것으로 여겨진다. 그런데 그 후 이 문제에 대한 후속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양승민의 연구는 그 초점을 ‘영조의 소설 애호’에 둔 것이 아니었기에, 이 점이 충분히 해명되지 못한 한계가 있지 않나 생각된다. 또한 양승민의 연구가 이루어진 2004년 당시에는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주관한 『승정원일기』의 원문 데이터베이스 구축 작업이 영조 39년(1763)까지만 이루어진 상태였다. 이에 영조 40년(1764)부터 영조 52년(1776)까지의 기사는 검토되지 않았다.²⁾ 그런데 미처 검토되지 않은 시기의 『승정원일기』에 영조의 소설 애호와 관련된 중요한 기사가 적지 않다. 마침 최근 2015년 11월에 『승정원일기』 전체 원문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작업이 완료되었다.³⁾ 그러므로 이제 영조 40년(1764)부터 영조 52년(1776)까지의 기사를 새로 고찰하는 연구가 필요하다.⁴⁾

이에 필자는 ‘영조의 소설 애호’에 초점을 두고 영조 연간 『승정원일기』의 소설 관련 기사를 고찰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먼저 영조가 어떤 소설을 읽었는지를 좀 더 확대해 살피고자 한다. 다음으로 영조의 소설 인식과 소설 향유 양상을 고찰하고자 한다. 특히 필자는 영조의 소설 향유가 사적(私的) 차원에 그치지 않고, 통치 행위와 관련해 공적 의미망을 획득하였다는 사실을 밝히는 데 주력하고자 한다. 또한 영조가 읽은 소설 목록이 18세기 당시 상층에서 향유한 소설 목록과 상당 부분 공통된다는

2) 양승민(2004), p. 261.

3) 『승정원일기』 전체 원문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작업은 국사편찬위원회의 주관으로 2001년부터 시작되어 2015년 11월에 완료되었다. 한편 현재 한국고전번역원에서 진행 중인 『승정원일기』의 번역 작업은 지금 속도대로라면 30여 년 뒤에 완료될 예정이다.

4) 최근 유춘동(2011), 「『수호전』(水滸傳) 관련 기록에 대한 연구」(『국학연구』 19, 한국국학진흥원)에서도 『승정원일기』의 소설 관련 기사가 검토되었으나, 『수호전』 관련 기사만 검토되었다.

점을 밝히고자 한다. 이러한 고찰을 통해 필자는 ‘소설 애호가’로서의 영조(英祖, 1694~1776)의 일면을 좀 더 깊이있게 밝히고, 그 소설사적 의의를 탐구해 보고자 한다.

2. 영조가 읽은 소설들

영조는 어떤 소설을 읽었을까? 본격적인 고찰에 앞서 지금까지 선행 연구에서 밝혀진 사실들을 종합해 보도록 한다.

양승민은 앞에서 언급했듯이 영조 39년(1763)까지의 『승정원일기』 기사를 검토하여 영조가 어떤 소설을 읽었는지를 밝혔다. 먼저 영조 27년(1751) 3월 15일자 기사, 영조 37년(1761) 7월 11자 기사, 영조 39년(1763) 12월 25일자 기사를 검토하여 영조가 『구운몽』(九雲夢)을 읽고 호평한 사실을 밝혔다.⁵⁾ 또한 영조 25년(1749) 3월 23일자 기사를 검토하여 영조가 『황명영렬전』(皇明英列傳)을 심정보(沈廷輔)에게 번역하도록 명한 사실을 밝혔다.⁶⁾ 한편 영조 27년(1751) 3월 15일자 기사를 검토하여 영조가 『사재자』(四才子),⁷⁾ 『남계연담』(南溪演談)에 관심을 가졌음을 밝혔다.⁸⁾ 다음으로 영조 22년(1746) 5월 19일자 기사 및 영조 30년(1754) 6월 10일자 기사를 검토하여 영조가 『전등신화』(剪燈新話)에 관심이 많았음을 밝혔다.⁹⁾

김영진은 황윤석(黃胤錫, 1729~1791)의 『이재난고』(頤齋亂藁)를 검토하여 영조가 『탁록연의』(涿鹿演義)의 구매를 명한 사실을 고찰했다.¹⁰⁾

5) 양승민(2004), pp. 262~264, pp. 269~274.

6) 양승민(2004), p. 279.

7) 『사재자』(四才子)는 『평산냉연』(平山冷燕)을 말한다.

8) 양승민(2004), pp. 262~264.

9) 양승민(2004), p. 277.

유춘동은 『승정원일기』의 『수호전』 관련 기사를 검토하였다. 그 결과 영조 17년(1741) 1월 6일자 기사, 영조 21년(1745) 9월 21일자 기사, 영조 31년(1755) 3월 18일자 기사 등 다수의 관련 기사를 통해 영조의 『수호전』 독서 사실을 밝혔다.¹¹⁾

무악고소설자료연구회에서는 『열성어제』(列聖御製) 권18에 수록되어 있는 「제문원사굴」(題文苑植橘)이라는 시를 소개하였다.¹²⁾ 이 시를 통해 영조가 『문원사굴』(文苑植橘)을 읽은 사실이 확인된다.

이상 근래 이루어진 선행연구를 통해 영조가 『구운몽』, 『황명영렬전』, 『수호전』, 『문원사굴』을 읽은 사실이 분명히 확인된다. 한편 『사재자』, 『남계연담』, 『전등신화』, 『탁록연의』의 경우 영조가 읽었는지 여부를 확정하기는 어렵지만, 영조가 그 소설들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가졌던 만큼 읽었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그런데 『승정원일기』에는 지금까지 알려진 것 외에도 영조가 읽은 여러 가지 소설에 대한 정보가 많다. 이에 필자는 영조가 어떤 소설을 읽었는지를 좀 더 확대해 살피고자 한다.

먼저 영조 52년(1776) 2월 26일자 기사를 보도록 한다.

상(上)께서 말씀하였다.

“삼대기서(三大奇書)는 내가 항상 좋아했는데, 『삼국지연의』(三國志)는 더욱 숙람(熟覽)했다.”

김상철(金尙喆)이 아뢰었다.

“비록 중국으로 말씀드리자면 곳곳에서 관왕(關王: 關羽)을 존봉(尊奉)합니다.”¹³⁾

10) 김영진(2010), 「조선후기 서적 출판과 유통에 관한 일고찰 — 『欽英』과 『頤齋亂藁』를 중심으로」, 『東洋漢文學研究』 30, 동양한문학회, p. 24.

11) 유춘동(2011), p. 215.

12) 무악고소설자료연구회 편(2005), 『한국고소설관련자료집 II-18세기』, 이회, pp. 310~311.

13) “上曰: ‘三大奇書, 予常好矣, 而於『三國志』, 尤熟覽矣.’ 尙喆曰: ‘雖以中國言之, 處處

인용문은 그날 진시(辰時)에 영조가 경희궁(慶熙宮) 집경당(集慶堂)에서 영의정(領議政) 김상철(金尙喆)과 나눈 대화의 일부이다. 굵게 표시한 부분에서 영조가 말한 ‘삼대기서’(三大奇書)는 『서유기』(西遊記)·『삼국지연의』(三國志演義)·『수호전』(水滸傳)이다. 이 사실은 그 며칠 뒤에 기록된 『승정원일기』 영조 52년(1776) 3월 2일자 기사에서, 영조가 “『서유기』·『삼국지연의』·『수호전』은 세상에서 삼기서(三奇書)라 일컫지만 (...)”¹⁴⁾이라고 말한 부분에서 확인된다. 그러므로 이 기사를 통해 영조가 『서유기』, 『삼국지연의』, 『수호전』을 즐겨 읽었으며, 그중에서도 『삼국지연의』를 가장 애호하여 숙람(熟覽)했다는 사실이 확인된다.

다음으로 영조 50년(1774) 4월 24일자 기사를 보도록 한다.

비망기(備忘記)로 또한 전교(傳敎)하셨다.

“기존에 명명(命名)한 것이 일컫기에 알맞으니, 예전에 동한(東漢) 때 이단(異端)이 서역(西域)에서 오자 그때 독실히 믿은 자는 오직 초왕(楚王)이었는데 이것을 나는 『동한연의』(東漢演義)에서 보았다 (...)”¹⁵⁾

인용문 중 굵게 표시한 부분에서 영조가 『동한연의』(東漢演義)를 읽은 사실이 확인된다. 또한 영조가 비망기(備忘記)¹⁶⁾에서 『동한연의』를 거론

尊奉關王矣.” 『승정원일기』, 영조 52년(1776) 2월 26일자 기사. 선행연구에 대한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이하의 『승정원일기』 기사는 모두 필자가 처음 번역하여 소개하는 것임을 밝혀 둔다.

14) “『西遊記』·『三國志』·『水滸志』, 世稱三奇書(…)” 『승정원일기』 영조 52년(1776) 3월 2일자 기사. 『승정원일기』 기사를 보면, 영조는 『삼국지연의』를 주로 ‘삼국지’(三國志)로 일컫고, 『수호전』을 주로 ‘수호지’(水滸志)로 일컫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논문에서는 해당 작품명을 각각 ‘『삼국지연의』’와 ‘『수호전』’으로 통일해 일컫고자 한다.

15) “以備忘記, 又傳于曰: ‘既命名宜稱, 昔東漢時, 異端自西域來, 其時篤信者惟楚王, 此子見『東漢演義』. (...)’” 『승정원일기』, 영조 50년(1774) 4월 24일자 기사.

하며 자신의 뜻을 전한 점이 주목된다.

다음으로 영조 50년(1774) 5월 16일자 기사를 보도록 한다.

비망기(備忘記)로 심상운(沈翔雲)에게 전교(傳敎)하셨다.

“(…) 예전에 한(漢)나라의 근 백년기업(百年基業)은 삼로동공(三老董公)에게서 비롯되었으니, 비록 연의(演義)이나 『서한연의』(西漢演義) 한 장회(章回) 제목인 ‘부로(父老)를 논하여 한왕(漢王)이 덕(德)을 펴다’에서 그 상(像)을 그리게 했고, 또한 말하기를, ‘황구(黃耇)에게 훈계가 될 만한 말을 구해야지 이것을 놓아두고 무엇을 먼저 하겠는가?’라고 하였다. (…)”¹⁷⁾

이 인용문 또한 비망기인데, 굵게 표시한 부분에서 영조가 『서한연의』(西漢演義)를 읽은 사실이 확인된다. 그런데 그 장회(章回) 제목을 정확히 언급한 사실로 보아, 영조가 『서한연의』를 여러 차례 반복해 읽은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 삼로동공(三老董公)은 한(漢)나라 때 지방의 장로(長老)로 유방(劉邦)이 아직 천하를 통일하기 전에 낙양(洛陽)에 왔을 때 ‘항우(項羽)는 무도(無道)하여 의제(義帝)를 시해하였으니 이 사실을 내세워 항우를 치면 제후들이 도울 것’이라고 조언한 인물이다. 이 사실은 『한서』(漢書) 고조본기(高祖本紀)에도 전하는 것이지만 영조가 사서(史書)가 아닌 연의소설 『서한연의』를 들어 말한 점이 주목된다.

다음으로 영조 38년(1762) 8월 19일자 기사를 보도록 한다.

16) ‘비망기’(備忘記)는 승지가 입시하지 않았을 때 국왕의 지시나 명령을 사알(司諫)을 시켜 적게 한 뒤 승정원에 보내 반포하도록 한 문서이다.

17) “備忘記, 傳于沈翔雲曰: ‘(…)昔漢幾百年基業, 其本三老董公, 其雖演義, 『西漢演義』一題目, 曰<論[論]父老漢王布德>, 圖其像, 亦云: <黃耇乞言, 捨此何先?>(…)” 『승정원일기』, 영조 50년(1774) 5월 16일자 기사. 필자가 확인해 본 결과 『西漢演義』의 제44회 장회 제목은 ‘論父老漢王布德’이다. 이 기사는 조금 뒤에 제3장에서 다시 자세히 고찰한다.

홍계희(洪啓禧)가 아뢰었다.

“촉요(燭妖)는 어떻습니까?”

상(上)께서 말씀하셨다.

“이것은 소설 『평요전』(平妖傳)의 뜻이니 편명(篇名)이 매우 괴이하다.”

홍계희가 아뢰었다.

“요(妖)는 요사스럽습니다.”

상(上)께서 말씀하셨다.

“오할한 것이지 요사스러운 것이 아니다.”¹⁸⁾

인용문은 그날 오시(午時)에 영조가 경희궁(慶熙宮) 자정전(資政殿)에 나아와 행호군(行護軍) 홍계희(洪啓禧)와 나눈 대화의 일부이다. 『수의편』(垂義編)의 이름을 고치는 일에 관해 논의하고 있다. 인용문 중 굵게 표시한 부분은 홍계희가 그 이름으로 ‘촉요(燭妖)가 어떻겠는가 물은 데 대한 영조의 답변이다. 이 부분에서 영조가 『평요전』을 익히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된다.

이상에서 영조 연간 『승정원일기』 기사를 검토하여 영조가 어떤 소설들을 읽었는지 고찰하였다. 선행연구에서 밝혀진 사실과 필자가 이 장에서 새로 밝힌 사실을 종합하여 영조가 읽은 소설들을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다.

『구운몽』, 『삼국지연의』, 『서유기』, 『수호전』, 『동한연의』, 『서한연의』, 『황명영렬전』, 『평요전』, 『문원사갈』

그런데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사재자』, 『남계연담』, 『전등신화』, 『탁록연의』의 경우, 영조가 읽었는지 여부를 확정하기는 어렵지만, 그 가능

18) “啓禧曰: ‘以燭妖則何如?’ 上曰: ‘此是小說『平妖傳』之意, 而篇名太怪矣.’ 啓禧曰: ‘妖則妖矣.’ 上曰: ‘迂也, 非妖也.’” 『승정원일기』, 영조 38년(1762) 8월 19일자 기사.

성이 클 것으로 추정된다.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작품의 제목을 밝히지는 않았으나, 영조가 자신이 읽은 소설 및 다양한 서사류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 『승정원일기』 기사가 지금까지 고찰한 것 외에도 다수 발견된다.¹⁹⁾

19) 다음 기사들이 주목된다. 다만 영조는 소설뿐만 아니라 다양한 서사류에 대한 통칭으로 “小說”이라는 말을 썼으므로, 이 점을 고려해 살필 필요가 있다.

- 『승정원일기』, 영조 19년(1743) 11월 23일자 기사: “上曰: ‘此事可謂烈俠. 而有一可疑者. 小說有一女, 是有夫女, 而爲尼丘所欺, 被辱於人, 而其女被辱之時, 齧割其人之舌, 仍又誘殺尼丘, 以報其恨, 此亦烈氣, 而節則毀矣. 此事子亦疑之, 當初似有見劫之事矣. 當其爲男服, 尋問金哨官之時, 其妻以非男疑之, 而厥夫責其妻, 招入其女, 此有可疑矣.’”
- 『승정원일기』, 영조 25년(1749) 5월 23일자 기사: “上笑曰: ‘卿言是矣. 然諸臣二朝入侍, 而徒煩起伏, 必致瘳疾矣. 子見一小說, 有一人當道, 萬人鼓掌云, 子欲對起以萬人嘯嗥一人撫膺之句矣. 今之世道, 可謂痛哭長吁矣.’”
- 『승정원일기』, 영조 25년(1749) 10월 7일자 기사: “上曰: ‘然則承旨所達, 開朗開朗矣. 子曾見小說, 則有醉僧打金光事, 醉僧以金光之不言而打之, 以爲將打己而擊之.’”
- 『승정원일기』, 영조 27년(1751) 윤5월 2일자 기사: 履亨曰: ‘黃精末, 入薏苡則好矣.’ 上曰: ‘黃精, 小說云白日登仙之藥也. 薏苡如彼之好, 今始知之矣.’”
- 『승정원일기』, 영조 29년(1753) 2월 29일자 기사: “上曰: ‘李如松, 於神宗皇帝爲親屬, 卿等知之乎?’ 天柱曰: ‘臣曾於筵中, 聞下教而知之, 而至於小說, 則尚未得見矣.’ 天輔曰: ‘出於何文?’ 上曰: ‘小說有之, 如松之妻, 鄭貴妃之弟也.’”
- 『승정원일기』, 영조 30년(1754) 11월 19일자 기사: “上曰: ‘此則外誘也. 小說有一牧童說夢事, 蓋吾道·異端, 其戒食色則一也. 漢武之求仙, 極爲可笑. 雖仙道, 無慾然後可做, 而武帝之多慾, 豈能做得仙乎? 世必無物慾仙, 此如在家僧之欲成佛. 少時招僧問之, 則言五十後無色慾云, 渠亦有點檢而然也. 予以爲吾儒之有物慾者, 反不如異端矣.’”
- 『승정원일기』, 영조 34년(1758) 10월 4일자 기사: “上曰: ‘子見一小說, 有人見古墓荒廢, 剪草灑酒, 其夜夢中, 一帝王丁寧來謝云, 此等事可矜憐, 褒揚之也.’ 鳳漢曰: ‘古戊寅如此, 今戊寅又如此, 褒忠彰善, 無遺憾焉, 爲今臣子, 孰不勸善乎? 今承下教, 不勝感歎.’”
- 『승정원일기』, 영조 49년(1773) 2월 22일자 기사: “以備忘記, 傳于李滉曰: ‘周有聖君, 四海風調雨順, 故越裳獻雉. 曾見唐本小說, 崔玄微園立幡, 竿有禦風, 今者風聲, 由於君衰而然也. 豈特此也? 暮年太康而然. 若問太康, 宴也爲先. (...)’”
- 『승정원일기』, 영조 49년(1773) 9월 21일자 기사: “上曰: ‘(...) 曾見小說, 其文本則心猿意馬, 故靈臺, 方寸之稱, 意蓋此也. 子亦自矢于靈臺方寸, 豈比息壤? (...)’”
- 『승정원일기』, 영조 52년(1776) 2월 28일자 기사: “上曰: ‘(...) 少時見小說, 學琴

이상의 고찰을 종합해 볼 때 영조는 『구운몽』을 비롯한 한국소설을 읽었으며, 연의소설(演義小說), 문언소설(文言小說), 신마소설(神魔小說), 인정소설(人情小說) 등 다양한 장르에 속하는 중국소설 또한 두루 읽은 것으로 확인된다.

3. 영조의 소설 애호와 그 의의

앞 장에서는 영조가 어떤 소설들을 읽었는지를 좀 더 확대해 고찰하였다. 이 장에서는 『승정원일기』 기사를 중심으로 영조의 소설 인식을 살피는 한편, 영조의 소설 향유 양상을 고찰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영조의 소설 애호의 특징적 면모를 밝히고, 그 소설사적 의의를 탐구해 보고자 한다.

소설에 대한 영조의 인식은 『승정원일기』 영조 38년(1762) 12월 6일자 기사의 다음 부분에서 잘 확인된다.

상(上)께서 말씀하셨다.

“나는 소시(少時)에 입직(入直)을 할 때면 항상 책을 보던 사람이라, 혹자는 ‘손에서 책을 놓지 않는다’라고 말했는데 이제는 늙어서 아파 누워 있는 때가 많소. 요즘 사람들을 보면 나태해 그런지 잠을 자느라 그런지 책을 보는 사람이 없소. 홍계희(洪啓禧)가 귀하지, 잠을 안 잔다고 하니.”

김효대(金孝大)가 아뢰었다.

“요즘 사람들은 비록 혹 책을 보더라도 소설에 불과합니다.”

상(上)께서 말씀하셨다.

“소설에도 또한 볼 만한 것이 있거늘 요즘 사람들은 이 또한 보지 않소.”²⁰⁾

者, 聞猗蘭操歎曰: <此足矣, 令勿復彈他調>, 今予意正若此. 嗚呼, 有此而命讀警世問答, 意兼自勉, 而此亦子製, 衛武抑詩, 亦何比于此? 昔殷湯得伊尹, 豈特平夏? 問其本, 卽日新又新之效也.(...)”

인용문은 그날 미시(未時)에 영조가 경희궁 사현합(思賢閣)에서 부제조(副提調) 김효대(金孝大)와 나눈 대화의 일부이다. 영조가 요즘 사람들은 입직할 때 통 책을 보지 않는다고 걱정하자 김효대가 그 말에 동조하며 “비록 혹 책을 보더라도 소설에 불과”하다고 답한다. 이에 굵게 표시한 부분에서 보듯이 영조는 “소설에도 또한 볼 만한 것이 있거늘 요즘 사람들은 이 또한 보지 않소”라고 말하고 있다. 이 대화는 몇 가지 점에서 흥미롭다. 첫째, 소설에 대한 영조의 인식이 긍정적이었음을 직접적으로 보여주는바 흥미롭다. 둘째, 영조 연간에 관료들이 궁에서 입직할 때 소설을 읽는 일은 예삿일이었음을 보여주는바 흥미롭다.

이 점에서 이 기사는 『정조실록』(正祖實錄) 정조 16년(1792) 10월 24일자 기사와 비교될 직하다.²¹⁾ 주지하듯이 정조는 이상항(李相瓚)과 김조순(金祖淳)이 궁에서 입직할 때 『평산냉연』 등의 소설을 읽었다는 이유로 벌을 내렸으며, 그 무렵부터 문체반정(文體反正)을 추진하였다. 그런데 영조와 김효대의 이 대화를 통해, 영조 연간만 하더라도 관료들이 궁에서 입직할 때 소설을 읽는 일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확인된다. 오히려 영조는 당시 관료들이 입직할 때 소설도 잘 보지 않는 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내고 있다.²²⁾

소설에 대한 영조의 긍정적 인식은 국왕이 되기 이전인 연잉군(延昞君) 시절에 이미 형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 추정과 관련하여 『승정원일

20) “上曰: ‘予少時入直, 常看書人, 或謂手不釋卷, 今老矣, 涔涔而臥時多矣. 觀今之人, 懶世界也, 睡世界也, 無看書之人矣. 洪啓禧貴矣, 不眠云矣.’ 孝大曰: ‘今人雖或看書, 不過小說也.’ 上曰: ‘小說亦有可觀者, 而今人亦不看之矣.’” 『승정원일기』, 영조 38년(1762) 12월 6일자 기사.

21) “先是丁未年間, 相瓚與金祖淳伴直翰苑, 取唐宋百家小說及『平山冷燕』等書以遣閑, 上偶使入侍注書, 視相瓚所事, 相瓚方閱是書, 命取入焚之, 戒兩人專力經傳, 勿看雜書.” 『정조실록』, 정조 16년(1792) 10월 24일자 기사.

22) 이 논문의 제2장에서 고찰했듯이 이상항과 김조순이 읽은 『평산냉연』, 즉 『사재자』는 영조도 읽었을 가능성이 크다.

기』 영조 27년(1751) 3월 2일자 기사 **의** 다음 부분이 참조된다.

나는 번저(藩邸)로부터 입승(入承)하여 비록 여항의 일을 알았으나 부모님의 병환을 보살필 때가 많아 또한 두루 알지 못했다. 너는 궁중에서 나고 자랐으니 이런 곳을 분명하게 알지 않아서는 안 된다. 그러하다면 비록 부녀가 언서(諺書)를 읽을 때에도 시비(是非)와 현우(賢愚)의 나뉠을 알 수 있다. 나는 소시(少時) 적에 어떤 부녀(婦女)가 『삼국지연의』를 읽다가 맥성(麥城)의 사건에 이르자 눈물을 흘리는 걸 본 일이 있다. (...)23)

인용문은 그날 사시(巳時)에 영조가 창경궁 시민당(時敏堂)에 나아와 동궁(東宮), 즉 훗날의 사도세자(思悼世子)에게 한 말의 일부이다. 굵게 표시한 부분에서, 영조는 어릴 적에 겪은 일을 회상하고 있다. 영조는 예전에 한 부녀가 『삼국지』 읽는 걸 보았는데, 관우(關羽)가 조조(曹操)의 군대에 쫓겨 패주(敗走)하다가 결국 최후를 맞게 된 ‘맥성(麥城)의 사건’에 이르자 눈물을 흘리는 걸 보았다고 한다. 영조의 이 언급은 18세기 당시 ‘소설 긍정론자’의 견해와 상통하는 것으로, ‘소설이 세교(世教)에 도움이 된다’는 시각을 보여준다. 즉, 평범한 부녀조차도 『삼국지연의』와 같은 소설을 읽으면 시비(是非)와 현우(賢愚)의 나뉠을 분명히 알 수 있게 된다는 생각이 드러나 있다. 이 기사로 보건대 소설에 대한 영조의 긍정적 인식은 일찍이 어릴 적부터 형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그렇다면 영조의 소설 향유 양상은 어떠했을까? 먼저 영조 22년(1746) 6월 27일자 기사 **의** 다음 부분이 주목된다.

23) “子則自藩邸入承。雖知閭巷間事，而侍湯時多，故亦未能周知矣。汝則生長於宮中，此等處，不可不分明知之。若此之，則雖婦女讀諺書時，能知是非賢愚之分矣。子少時，見婦女讀『三國志』，至麥城事，有涕泣事矣。(...)” 『승정원일기』, 영조 27년(1751) 3월 2일자 기사.

상(上)께서 말씀하셨다.

“병중(病中)에 소일(消日)하는 방법으로 혹은 소설이 있고 혹은 잡기(雜技)가 있으니, 나는 이 두 가지를 하지 않고는 과연 소일하기 어렵소. 유신(儒臣)에게 읽도록 명하여 그것을 들으면 외려 낮잠보다 나으니 침전(寢殿)에서 인접(引接)하여도 또한 무방하오.”

송인명(宋寅明)이 아뢰었다.

“그 또한 꼭 무방하지 않은 것은 아니옵니다.”²⁴⁾

인용문은 그날 사시(巳時)에 영조가 창경궁 환경전(歡慶殿)에서 좌의정(左議政) 송인명(宋寅明)과 나눈 대화의 일부이다. 이때 영조는 와병(臥病) 중이었는데, 인용문 중 굵게 표시한 부분에서 보듯이 와병 중 소일하기 좋은 방법으로 소설과 잡기(雜技)를 들고 있다. 특히 “유신(儒臣)에게 읽도록 명하여 그것을 들으면 외려 낮잠보다 나으니” 운운한 부분을 보면, 당시 영조는 몸이 아플 때 종종 소설 낭송을 들으며 위안을 얻었던 것으로 보인다.²⁵⁾

영조 34년(1758) 12월 19일자 기사의 다음 부분 또한 주목된다.

이종백(李宗白)이 탕약을 들었다. 김상로(金尙魯)가 받들어 올리 상(上)께서 마시고 나서 말씀하셨다.

“먼저 원기(元氣)를 보하면 백병(百病)이 불침(不侵)하니 중탕(中湯)으로 다스려 얻는 것보다 낫소.”

김상로(金尙魯)가 아뢰었다.

24) “上曰: ‘病中消日之道, 或以小說, 或以雜技, 而予則不爲此二者, 果難於消日. 命儒臣讀而聽之, 猶勝於晝寢, 臥內引接, 亦無所妨矣.’ 寅明曰: ‘是亦不必爲妨矣.’” 『승정원 일기』, 영조 22년(1746) 6월 27일자 기사. 이 기사는 양승민(2004), pp. 275~277에서 소개된바 있다.

25) 양승민(2004), pp. 275~277에서, ‘영조가 향유한 『구운몽』은 국문본이다’라는 가설을 증명하는 추가 논거로서 이 기사를 제시하였다. 이 기사가 영조의 소설 향유 양상의 일면을 흥미롭게 보여주는 것임은 분명하나, 그렇다고 하여 영조가 향유한 『구운몽』을 국문본으로 확정하기는 어렵다고 생각된다.

“지금 경고(更鼓) 소리를 들으니 벌써 삼경(三更)입니다. 어제 밤에도 밤새 편히 주무시지 못하셨으니 **오늘밤에는 청컨대 신이 진언(陳言)하는 언문(諺文) 소설책을 취침의 자(資)로 삼으소서.**”

상(上)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언문(諺文)은 취침하는 방법이 아니요, 진서가 취침하는 방법이요.”

김상로(金尙魯)가 아뢰었다.

“어찌 그러하옵니까?”

상(上)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속언(俗諺)에 이런 말이 있소. 예전에 한 부인이 아이가 울자 책으로 아이를 덮어주었는데 옆에 있던 사람이 물었소. ‘책을 덮어 아이의 울음을 그치게 하려 하다니 어째서요?’ 부인이 말하기를, ‘아이 아버지가 평소 책을 잡으면 눕고, 누우면 잠이 드니, 책으로 아이를 덮는 건 아이를 잠들게 하고자 해서지요’라고 했대요. 그러니 진서가 취침하게 하는 물(物)이 아니겠소?”

이에 크게 웃었다.²⁶⁾

인용문은 그날 삼경(三更) 무렵에 영조가 창경궁 공묵합(恭默閣)에서 도제조(都提調) 김상로(金尙魯)와 나눈 대화의 일부이다. 영조는 이때도 외병 중이었는데, 김상로가 밤이 깊도록 잠들지 못하는 영조를 위로하자 그에게 재미있는 이야기를 건네고 있다. 그런데 인용문 중 굵게 표시한 김상로의 말로 보건대, 영조는 잠을 이루지 못할 때 종종 신하들의 소설 낭송을 들었던 것으로 보인다.²⁷⁾

26) “宗白煎入。尙魯奉進，上進御訖曰：‘先補元氣，則百病不侵，莫如理中湯之爲得也。’(…)尙魯曰：‘今聞更鼓之聲，已三更矣。昨夜旣不能徹宵寢寢，今夜則請以臣所陳諺文小說冊，爲就睡之資焉。’上曰：‘諺文非就睡之道，真書卽噉睡之道也。’尙魯曰：‘何也?’上曰：‘諺有之，昔一婦人，兒啼而以一冊子覆之，傍人曰：<覆以冊而欲止兒啼者何也?> 婦人曰：<兒父平日持冊則臥，臥則睡，所以覆兒者，欲其睡也，然則真書非就睡之物乎?>’因大笑。”『승정원일기』, 영조 34년(1758) 12월 19일자 기사. 이 기사는 양승민(2004), pp. 275~277에서 소개된 바 있다.

27) 양승민(2004), pp. 275~277에서, 이 기사를 근거로 영조가 주로 언문 소설을 향유하

이처럼 영조는 소설을 애호하여 몸이 아플 때나 밤늦도록 잠을 이루지 못할 때 소설을 통해 위안을 얻었던 듯하다. 국왕 영조 또한 보통의 소설 독자들과 크게 다를 바 없이 소설 향유를 고된 삶의 작은 낙으로 삼았다는 점이 주목된다.

그런데 이보다 더 주목되는 점은, 영조의 소설 애호가 사적(私的) 향유에 그치지 않고, 공적(公的) 의미망을 획득하는 데 이르렀다는 사실이다. 그 주요 양상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도록 한다.

첫째, 영조는 ‘경연(經筵)과 같은 공적(公的) 논의의 장(場)에서 신하들과 소설을 화제로 삼았다. 이 사실이 확인되는 기사는 다수이지만, 여기서 그 일례로 영조 12년(1736) 6월 23일자 기사를 보도록 한다.

상(上)께서 말씀하셨다.

“조조(曹操)의 무상(無狀)함은, 천자(天子)를 끼고 제후(諸侯)들에게 호령한 데 있는가, 내가 주(周) 문왕(文王)이 될 수 있다고 말한 데 있는가? 승지(承旨)는 본 바를 다시 진언함이 가하노라.”

이주진(李周鎭)이 아뢰었다.

“신(臣)이 이존욱(李存勳: 莊宗-인용자)을 조조에 비유한 것은 언단(言端)이 잘못 되었나이다. 대저 이존욱은 이미 하남(河南)과 하북(河北)을 평정한 후에 당(唐)의 후손을 세우지 않고 자신을 세웠으니 참으로 당실(唐室)의 죄인입니다. 조조의 경우는 처음부터 한실(漢室)을 빼앗을 것을 모의하였고, 또한 복황후(伏皇后)를 시해하였으니 극도로 흉악하거늘 천고(千古)에 죽이지 못한 것이 한스럽사옵나이다.”

조명겸(趙明謙)이 아뢰었다.

“난적(亂賊)은 예로부터 있었으나 조조에 이르러서는 금세(今世)의 삼척동자도 모두 쏘아죽이고자 합니다. 이는 『삼국지연의』가 우

였으며, “그 소설 감상 방식이란 주로 신하가 낭독해주는 것을 듣는 형태였다”고 하였다. 그런데 영조가 소설 낭송을 듣는 것은 대개 와병 중이거나 취침시의 일로 보이므로, 영조가 평상시에도 소설을 주로 낭송의 방식으로 감상했는지 여부는 단언하기 어렵다고 생각된다.

리나라에 전파되어 유행하여 비록 여항의 부녀자나 아이들도 들어서 익히 알지 못함이 없어서이옵니다.”

오언주(吳彦胄)가 아뢰었다.

“호씨(胡氏)가 말하기를, ‘장종(莊宗)은 극기(克己)의 도(道)를 알지 못했다’라고 했습니다. 장종은 죽히 꾸짖을 것도 없으나 그 말은 좋습니다. ‘극기(克己) 두 자를 체념(體念)하심이 어떠하옵니까?’

상(上)께서 말씀하셨다.

“말한 바가 옳도다.”²⁸⁾

인용문은 그날 술시(戌時)에 영조가 경희궁 흥정당(興政堂)에 나아와 경연(經筵)에서 참찬관(參贊官) 이주진(李周鎭), 검토관(檢討官) 조명겸(趙明謙), 시독관(侍讀官) 오언주(吳彦胄) 등과 나눈 대화의 일부이다. 천하의 난적(亂賊)에 대해 논하면서 장종(莊宗)과 조조(曹操)를 비교하고 있는데, 인용문 중 굵게 표시한 조명겸의 발언이 주목된다. 영조와 조정 신하들이 함께 하는 경연에서 『삼국지연의』의 유행에 대해 자연스럽게 발언하고 있는 것이다. 주지하듯이 본래 경연은 국왕으로 하여금 유교 경전이나 『자치통감』(資治通鑑)과 같은 사서를 내면화하게 하여 이를 토대로 이상적인 정치를 하도록 이끄는 데 목적을 둔다. 즉, 경연은 유교를 국시로 삼은 왕조 국가 조선의 이념과 체제를 공고히 하는 핵심적인 공적 논의의 장인 것이다. 그런데 이 인용문에서 확인되었듯이, 영조 연간에는 경연에서 소설의 내용이 종종 논의되기도 하였다.²⁹⁾

28) “上曰: ‘曹操之無狀, 在於挾天子, 以令諸侯耶, 在於吾其爲周文王之語耶? 承旨, 更陳所見, 可也.’ 周鎭曰: ‘臣之以存昴, 比喻操者, 言端適誤矣. 大抵存昴, 既平河南北後, 不立唐子孫而自立, 實是唐室罪人也. 至若操則自初謀奪漢室, 又弑伏皇后, 窮兇極惡, 千古之下, 恨不殄戮矣.’ 明謙曰: ‘亂賊自古有之, 而至於曹操, 則今世之三尺童子, 皆欲射之. 此則『三國志』播行於我國, 雖閭巷婦孺, 無不稔聞之致也.’ 彦胄曰: ‘胡氏以爲莊宗不知克己之道. 莊宗則不足責, 而其言好矣. 克己二字, 體念何如?’ 上曰: ‘所達是矣.’” 『승정원일기』, 영조 12년(1736) 6월 23일자 기사.

29) 이 사실과 관련하여, 이 논문의 제2장에서 이미 살핀 바 있는 영조 50년(1774) 4월

둘째, 영조는 소설을 정치적 판단의 참고자료로 삼기도 하였다. 그 일례로 영조 25년(1749) 3월 23일자 기사를 보도록 한다.

원경하(元景夏)가 아뢰었다.

“성의(聖意)께서 이미 고황(高皇: 明太祖-인용자)을 함께 제사지내고자 하오시니 이는 성고(聖考: 肅宗-인용자)를 계술(繼述)하는 것이므로 장차 천하 후세에 말이 있을 터이니 바라옵건대 성상(聖上)께서는 결단하시어 행하시옵소서.”

상께서 말씀하셨다.

“예전에 고(故) 우윤(右尹) 심정보(沈廷輔)에게 명하여 언서(諺書)로 『황명영렬전』(皇明英烈傳)을 번역하게 했는데, 어제(御製)가 있다.³⁰⁾ 입번(立番)한 유신(儒臣)이 어제(御製)를 고출(考出)하여 대기하라.”³¹⁾

인용문은 그날 신시(申時)에 영조가 창경궁(昌慶宮) 환경전(歡慶殿)에 나아와 좌참찬(左參贊) 원경하(元景夏)와 나는 대화의 일부이다. 명(明)의 태조(太祖)·신종(神宗)·의종(毅宗) 세 황제를 대보단(大報壇)에 병향(並享)하는 문제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숙종(肅宗)대에 설치된 대보단에서는 본래 명(明) 신종(神宗)의 제사만 지내 왔다. 그런데 그해 조선에 『황조사』(皇朝史)라는 책이 전해져 명의 마지막 황제 의종이 병자호란 당시 조선에 원병(援兵)을 보내려고 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이를 계기로 대

24일자 기사 및 영조 50년(1774) 5월 16일자 기사를 다시 환기해 볼 만하다. 영조는 신하들에게 내리는 ‘비망기’(備忘記)와 같은 공적 문서에서도 소설을 종종 거론하였다.

30) 이 어제(御製)가 무엇인지는 미상이다. 다만, 이 논문의 제2장에서 살폈듯이, 영조가 『문원사굴』을 읽고 「제문원사굴」(題文苑榭橋)이라는 시를 지은 사례가 있어 참조가 된다.

31) “景夏曰: ‘聖意既欲立祀高皇, 則此所以繼述聖考, 將有辭於天下後世, 惟願聖上斷而行之.’ 上曰: ‘昔年, 命故右尹沈廷輔, 以諺書翻譯『皇明英烈傳』, 而有御製矣. 入番儒臣, 考出御製以待.’” 『승정원일기』, 영조 25년 3월 23일자 기사.

보단을 증수(增修)하고 의종의 제사도 함께 지내자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이에 당시 조정에서 찬반양론이 일었는데, 그 격론의 외중에 영조가 명 태조도 함께 배향하자는 제3의 주장을 제시하였다.³²⁾ 이처럼 영조가 태조까지 포함시켜 세 황제를 대보단에 함께 배향하고자 한 이유에 대해, 국사학계의 선행연구에서는 대체로 탕평군주로서의 영조의 왕권 강화 의도로 해석해 왔다.³³⁾ 하지만 영조가 의종뿐만 아니라 왜 태조까지 함께 배향하고자 했는지는 여전히 소연하지 않은 듯하다.

이 문제와 관련해 인용문의 굵게 표시한 부분이 주목된다. 영조는 대보단 병향 문제라는 중요한 국정 논의 중에, 예전에 심정보(沈廷輔)에게 명하여 『황명영렬전』(皇明英烈傳)을 번역하게 한 일을 거론하고 있다. 주지하듯이 『황명영렬전』은 명 태조 주원장(朱元璋)과 명의 개국 공신(功臣)들의 치적을 다룬 연의소설이다. 이러한 사실에 근거해 볼 때, 영조는 일찍이 『황명영렬전』을 읽고 큰 감동을 받았으며, 그래서 명 태조를 신종 및 의종과 더불어 대보단에 병향하자는 주장을 펴게 된 것이 아닌가 추정된다. 그런데 인용문 중 『황명영렬전』이 거론된 부분은 『영조실록』에는 실리지 않고, 『승정원일기』에만 기록되었다. 그 결과 지금까지 그 실상이 제대로 드러나지 못한 것으로 생각된다.³⁴⁾ 이처럼 영조는

32) 김호(2003), 「英祖의 大報壇 증수와 明 三皇의 향사」, 『한국문화』 32,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pp. 181~196 참조.

33) 김호(2003), pp. 181~196; 이근호(2003), 「영조의 명 태조 이해와 황단병사(皇壇竝祀)」, 『조선시대의 정치와 제도: 조선시대 양반 사회와 문화』, 집문당, pp. 471~491.

34) 주지하듯이 『승정원일기』는 국왕의 국정(國政) 전반에 대한 광범위한 기록을 담은 1차 사료로서 사실 확인과 전례의 참조 등 현재의 정치적 필요를 위해 작성된 사서이다. 그 결과 비교적 ‘있는 그대로’ 기술하는 편찬 원칙을 따랐다. 그에 비해 『조선왕조실록』은 국왕의 사후에 편찬되는 정사(正史)로서 후대의 역사적 평가를 위해 작성된 사서이다. 그 결과 사관(史官)의 주관적 평가에 따라 선별적으로 기술되었다. 『영조실록』을 편찬한 사관들은 영조의 소설 애호와 관련된 사실을 기록에서 전부 제외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 결과 영조가 소설을 애호한 실상이 『영조실록』에는 잘 드러나 있지 않은 것으로 사료된다.

소설을 애호하여 때로 소설을 정치적 판단의 참고 자료로 삼기도 하였던 바, 각별한 주목을 요한다.

셋째, 영조는 소설에서 배운 바를 국정(國政)에서 그대로 실천하기도 하였다. 그 일례로 영조 50년(1774) 5월 16일자 기사를 보도록 한다. 이 기사는 이 논문의 제2장에서 부분적으로 살펴보았으나, 여기서는 그 전문(全文)을 자세히 고찰해 본다.

비망기(備忘記)로 심상운(沈翔雲)에게 전교(傳敎)하였다.

“아! 금년의 혹심한 가뭄은 팔순의 나이에 처음 보는 것이라 날로 애타우고 근심하나니 이 또한 험후어(歇後語)이다.

고인(古人)이 말하기를, ‘세 사람이 가면 반드시 나의 스승이 있다’고 하였다. 예전에 한(漢)나라의 근 백년기업(百年基業)은 삼로동공(三老董公)에게서 비롯되었으니, 비록 연의(演義)이나 『서한연의』(西漢演義) 한 장회(章回) 제목인 ‘부로(父老)를 논하여 한왕(漢王)이 덕(德)을 퍼다’에서 그 상(像)을 그리게 했고, 또한 말하기를, ‘황구(黃耇)에게 훈계가 될 만한 말을 구해야지 이것을 놓아두고 무엇을 먼저하겠는가?’라고 하였다.

그러나 기로(耆老)가 전폐(殿陛)에 오를 리가 있겠는가? 내 오늘 지영처(祗迎處)³⁵⁾에서 마땅히 [기로들을-인용자] 보리니, 사서(士庶)를 막론하고 벼슬을 시킬 만한 자들을 모두 오게 해 기다리게 하라.”³⁶⁾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이 인용문을 통해 영조가 『서한연의』를 그 장회 제목을 기억할 만큼 자세히 읽은 사실이 확인된다. 그런데 영조의 소설

35) ‘지영처’(祗迎處)는 백관(百官)이 임금의 환행(還幸)을 공손히 맞이하는 곳을 이른다.

36) “備忘記, 傳于沈翔雲曰: ‘噫, 今年亢旱, 八旬初見, 日以焦悶, 其亦歇後語. 古人云: <於三人行, 必有我師>. 昔漢幾百年基業, 其本三老董公, 其雖演義, 『西漢演義』一題目, 曰<論[論]父老漢王布德>, 圖其像, 亦云: <黃耇乞言, 捨此何先?>. 然耆老何登殿陛? 予於今日, 祗迎處當見, 莫問士庶, 可以致身者, 皆令來待.’” 『승정원일기』, 영조 50년(1774) 5월 16일자 기사.

향유 양상과 관련해 이 인용문에서 더 주목되는 점은, 영조가 소설에서 배운 바를 국정에서 그대로 실천했다는 사실이다. 인용문에 서술되어 있듯이, 당시 조선은 가뭄이 극심하여 영조는 국왕으로서 날로 애태우고 근심하였다. 그때 영조는 『서한연의』의 한 부분을 떠올렸던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유방(劉邦)이 황구(黃耇)에게 훈계를 얻은 것처럼 영조 자신도 지영처(祗迎處)에서 기로(耆老)들을 만나보겠다는 결심을 하였던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인용문의 굵게 표시한 부분에서 보듯이, 영조는 “사서(士庶)를 막론하고 벼슬을 시킬 만한 자들을 모두 오게 하라”는 인재등용에 대한 파격적인 뜻을 드러내기까지 하였다.

이상 세 가지 주요 양상을 통해 고찰하였듯이, 영조의 소설 애호는 사적 향유에 그치지 않고, 통치 행위와 관련하여 공적(公的) 의미망을 획득하였던바, 이 점이 대단히 문제적이다. 영조의 전대와 후대의 조선 국왕 중에도 소설을 즐겨 향유한 사례가 몇몇 보고된 바 있지만,³⁷⁾ 영조와 같은 특별한 사례는 전무후무하지 않은가 여겨진다.

그런데 이처럼 국왕이 ‘경연’(經筵)과 같은 공적(公的) 논의의 장(場)에서 소설을 화제로 삼고, 소설을 정치적 판단의 참고자료로 삼기도 하며, 소설에서 배운 바를 국정(國政)에서 그대로 실천하기도 하였다면, 영조 연간의 신하들은 소설에 대한 개인적인 호오(好惡)를 떠나 정치적 필요 때문에라도 소설을 읽을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 게다가 영조는 신하들에게 직접 소설 독서를 명한 일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음은 영조의 재위 마지막 해인 영조 52년(1776)년 3월 2일자 기사이다.

37) 김수영(2015), 「효종(孝宗)의 <삼국지연의>(三國志演義) 독서와 번역」, 『국문학연구』 32, 국문학회, pp. 67-88 참조.

상(上)께서 말씀하셨다.

“옛말에 ‘의심하면 말기지 말고, 말기면 의심하지 말라’고 한 것은 여느 신하에 대해서도 그래야 하거늘 하물며 대관(大官)이겠는가? 잦은 체차(遞差)가 근일(近日)과 같은 때가 없었으니 개탄스러움을 어찌 이기겠는가?

『서유기』·『삼국지』·『수호지』는 세상에서 ‘삼기서’(三奇書)라 일컫지만 어찌 특별히 본서만 언해(諺解)하겠는가? 읽으라는 명(命) 또한 그러하니 대저 접때 이미 유시(諭示)했노라.

비록 이러한 때라 할지라도 만약 인군(人君)이 있다면 무슨 상관이 있겠는가? 내가 주(周) 난왕(赧王)과 한(漢) 헌제(獻帝)를 일컬었지만, 비록 권신(權臣)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들의 눈에 주(周) 난왕(赧王)과 한(漢) 헌제(獻帝)가 있었다면 어찌 그 지경에 이르렀겠는가? (...)”³⁸⁾

인용문의 굵게 표시한 부분을 보건대, 영조는 직접 신하들에게 소설을 읽으라는 유시(諭示)를 내린 적이 있었던 듯하다.

이상에서 고찰한 사실들을 종합해 보건대 영조의 소설 애호는 결과적으로 당대 상층의 소설 향유 문화에 일정 정도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 지점에서 이 논문의 제2장에서 고찰한 영조가 읽은 소설들을 다시 살펴 볼 필요가 있을 듯하다. 영조는 『구운몽』, 『삼국지연의』, 『서유기』, 『수호전』, 『동한연의』, 『서한연의』, 『황명영렬전』, 『평요전』, 『문원사골』을 읽었다. 한편 확인하기는 어렵지만 『사재자』, 『남계연담』, 『전등신화』, 『탁록연의』의 경우, 영조가 읽었을 가능성이 크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이 소설들은 상당 부분 18세기에 상층에서 향유한 소설 목록과 공통된다. 먼저 영조의 아들인 사도세자가 그 제작을 명하고 서문(序文)

38) “上曰: ‘古語云<疑之勿任, 任之勿疑>, 凡臣猶然, 況大官乎? 數遞莫若近日, 曷勝慨然? 『西遊記』·『三國志』·『水滸志』, 世稱三奇書, 豈特本書諺解? 命讀亦然, 大抵頃者已論. 其雖此等時, 其若有君, 其何關乎? 予稱周赧·漢獻, 其雖有權臣, 眼有周赧·漢獻, 豈至于此?(...)’” 『승정원일기』, 영조 52년(1776) 3월 2일자 기사.

을 쓴³⁹⁾ 『중국소설회모본』(中國小說繪模本)에 수록된 작품 목록과 비교해 보자.⁴⁰⁾ 『구운몽』의 경우 『중국소설회모본』의 편찬 취지에 맞지 않으니 제외하고 그 나머지를 비교해 보면, 『삼국지연의』, 『서유기』, 『수호전』, 『동한연의』, 『서한연의』, 『황명영렬전』, 『탁록연의』, 『문원사굴』, 『사재자』, 『전등신화』가 공통된다. 다음으로 윤덕희(尹德熙, 1685~1766)⁴¹⁾가 작성한 ‘소설경람자’(小說經覽者)⁴²⁾에 기록된 작품 목록과 비교해 보자.⁴³⁾ 『삼국지연의』, 『서유기』, 『수호전』, 『동한연의』, 『서한연의』, 『황명영렬전』, 『평요전』, 『문원사굴』, 『사재자』, 『전등신화』가 공통된다. 앞서도 말했듯이 영조가 실제로 읽은 소설은 이 논문에서 필자가 밝힌 것보다 훨씬 방대했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지금 밝혀진 사실만 보더라도, 영조가 읽은 소설들은 18세기 당시 왕실과 사대부가의 상층 남성들이 향유한 소설들과 상당 부분 공통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소설 애호가’였던 국왕 영조의 문화적 영향력을 새롭게 주목해야 하지 않을까? 지금까지 조선 후기 상층의 소설 향유 문제는 주로 왕실 바깥의 상층 사대부, 그중에서도 특히 경화사족(京華士族)의 문예 취향 중심으로 논의되어 왔다.⁴⁴⁾ 그 과정에서 왕실의 소설

39) 정병설(2009), 「사도세자가 명해서 만든 화첩: 『중국소설회모본』(中國小說繪模本)」, 『문헌과해석』 47, 문헌과해석사, pp. 126~135 참조.

40) 『支那歷史繪模本』,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청구기호: 한귀古朝82-11), pp. 1~141; 무악고소설자료연구회 편(2005), pp. 94~104 참조.

41) 윤덕희의 자(字)는 경백(敬伯)이고, 호(號)는 낙서(駱西)이며, 본관은 해남(海南)이다. 그 고조(高祖)는 윤선도(尹善道)이고, 그 부친은 윤두서(尹斗緒)이다. 문인화가로 살았으며, 가선대부(嘉善大夫) 동지중추부사(同知中樞府事)에 추증되었다. 문집으로 『수발집』(洩勃集)이 전한다.

42) ‘소설경람자’(小說經覽者)는 윤덕희의 『수발집』(洩勃集) 권4에 실려 있다.

43) 차미애(2001), 「駱西 尹德熙 繪畫 研究」, 홍익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박재연(2002), 「윤덕희(尹德熙)의 소설경람자(小說經覽者)」, 『문헌과해석』 19, 문헌과해석사, pp. 207~216; 무악고소설자료연구회 편(2005), pp. 155~164 참조.

44) 강명관(1999), 「조선후기 서적의 수입·유통과 장서가의 출현」, 『조선시대 문학 예

향유 문제는 다소 종속적이거나 부수적인 것으로 간주되어 온 면이 없지 않다. 그러나 지금까지 고찰한 ‘소설 애호가’ 영조의 경우로 볼 때, 이제 국왕을 위시한 왕실의 소설 향유를 아울러 고려하는 시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4. 맺음말

이 논문에서는 영조 연간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의 소설 관련 기사를 통해 ‘소설 애호가’로서의 영조의 일면을 좀 더 깊이있게 밝히고, 그 소설사적 의의를 탐구하였다.

영조는 선행연구에서 밝혀진 것 외에도 『삼국지연의』, 『서유기』, 『동한연의』, 『서한연의』, 『평요전』 등의 소설을 읽었다. 특히 영조는 당시 조선에서 ‘삼대기서’(三大奇書)로 일컬어진 『서유기』·『삼국지연의』·『수호전』을 즐겨 읽었으며, 그중에서도 『삼국지연의』를 숙람했다. 종합컨대 영조는 『구운몽』을 비롯한 한국소설을 읽었으며, 연의소설(演義小說), 문언소설(文言小說), 신마소설(神魔小說), 인정소설(人情小說) 등 다양한 장르에 속하는 중국소설 또한 두루 읽었다.

영조는 소설의 가치와 효용을 긍정하였다. 소설에 대한 영조의 긍정적 인식은 연잉군(延祜君) 시절부터 형성된 것으로 보이며, 국왕으로 재위한 50여 년 동안 영조는 줄곧 소설을 애호하였다. 그런데 이 논문에서 특히 주목한 점은, 영조의 소설 향유가 사적(私的) 차원에 그치지 않고, 통치 행위와 관련하여 공적 의미망을 획득하는 데 이르렀다는 사실이다. 첫째, 영조는 ‘경연’(經筵)과 같은 공적(公的) 논의의 장(場)에서 소설을 화제로 삼았다. 둘째, 영조는 소설을 정치적 판단의 참고자료로 삼기도

술의 생성 공간』, 소명출판, pp. 277~316; 이지영, 「18세기 경화사족의 소설 향유」, 『국문학연구』 21, 국문학회, 2010, pp. 67~93 참조.

하였다. 셋째, 영조는 소설에서 배운 바를 국정(國政)에서 그대로 실천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실에 근거해 볼 때, 영조의 소설 애호는 당대 상층의 소설 향유 문화에 일정 정도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 점과 관련해 영조가 읽은 소설들이 사도세자의 『중국소설회모본』에 수록된 소설 목록 및 윤덕희의 ‘소설경람자’에 수록된 소설 목록과 상당 부분 공통되어 주목을 요한다.

지금까지 조선 후기 상층의 소설 향유 문제는 주로 경화사족(京華士族)으로 대표되는 왕실 밖의 상층 사대부 중심으로 논의되어 온 경향이 있다. 그런데 이 논문에서 고찰한 영조의 사례로 볼 때, 이제 국왕을 위시한 왕실의 소설 향유를 아울러 고려하는 시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이 논문에서는 방법론상 영조 연간 『승정원일기』를 고찰하는 데 초점을 두었으므로, 영조의 소설 애호가 동시대 상층의 소설 향유 문화 속에서 어떠한 위상과 의미를 지녔는가를 해명하는 데 미흡한 점이 있었다. 또한 영조의 소설 향유를 조선시대 국왕의 소설 향유사라는 통시적 관점에서 조망하는 작업도 유보되었다. 이러한 남은 문제들은 앞으로 필자의 후속 과제로 삼고자 한다.

참고문헌

【자 료】

- 『承政院日記』, 서울대학교 규장각(奎章閣) 소장본;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DB.
『英祖實錄』, 한국고전번역원 고전종합DB.
『正祖實錄』, 한국고전번역원 고전종합DB.
『支那歷史繪模本』,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청구기호: 한귀古朝82-11).

【단행본】

- 무악고소설자료연구회 편(2005), 『한국고소설관련자료집 II-18세기』, 이화.

【논 문】

- 강명관(1999), 「조선후기 서적의 수입·유통과 장서가의 출현」, 『조선시대 문학 예술의 생성 공간』, 소명출판.
김수영(2015), 「효종(孝宗)의 <삼국지연의>(三國志演義) 독서와 번역」, 『국문학연구』 32, 국문학회.
김영진(2010), 「조선후기 서적 출판과 유통에 관한 일고찰 — 『欽英』과 『頤齋亂藁』를 중심으로」, 『東洋漢文學研究』 30, 동양한문학회.
김 호(2003), 「英祖의 大報壇 증수와 明 三皇의 향사」, 『한국문화』 32,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 연구원.
박재연(2002), 「윤덕희(尹德熙)의 소설경람자(小說經覽者)」, 『문헌과해석』 19, 문헌과해석사.
양승민(2004), 「『承政院日記』 소재 소설 관련 기사 변증」, 『古典文學研究』 26, 한국고전문학회.
유춘동(2011), 「『수호전』(水滸傳) 관련 기록에 대한 연구」, 『국학연구』 19, 한국국학진흥원.
이근호(2003), 「영조의 명 태조 이해와 황단병사(皇壇祀社)」, 『조선시대의 정치와 제도: 조선시대 양반 사회와 문화』, 집문당.
이지영(2010), 「18세기 경화사족의 소설 향유」, 『국문학연구』 21, 국문학회.

132 인문논총 제73권 제1호 (2016.2.29)

정병설(2009), 「사도세자가 명해서 만든 화첩: 『중국소설회모본』(中國小說繪模本),
『문헌과해석』 47, 문헌과해석사.
차미애(2001), 「駱西 尹德熙 繪畫 研究」, 홍익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원고 접수일: 2015년 12월 31일

심사 완료일: 2016년 1월 21일

게재 확정일: 2016년 1월 27일

ABSTRACT

King Yeongjo's Love for Novels and Its Meaning

Kim, Soo-Young*

This paper searches King Yeongjo's *Seungjeongwonilgi* (承政院日記, *Journal of the Royal Secretariat*) for novel-related articles to shed light on King Yeongjo (英祖, 1694~1776) as a novel mania and to explore its meaning in the history of Korean novels. The findings of this study are described below.

King Yeongjo, in addition to the volumes revealed in previous studies, read *Romance of the Three Kingdoms* (三國志演義), *Journey to the West* (西遊記), *Romance of the Eastern Han* (東漢演義), *Romance of the Western Han* (西漢演義), *Pingyaozhuan* (平妖傳) etc. In particular, King Yeongjo enjoyed reading Joseon's three queer books, *Journey to the West*, *Romance of the Three Kingdoms*, and *Water Margin* (水滸傳), of which *Romance of the Three Kingdoms* was read with particular care. In short, King Yeongjo read *Guummong* (九雲夢) and other Korean novels, as well as romances (演義小說), literary novels (文言小說), supernatural novels (神魔小說), renqing novels (人情小說), and other Chinese novels in diverse genres.

* 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University of Seoul

King Yeongjo acknowledged the value and utility of novels. Such a positive perception about novels seems to have been formed from the Prince Yeoningun (延祜君) period, and during his 50 year reign as a king, King Yeongjo continued to enjoy reading novels. When sick or unable to sleep far into the night, King Yeongjo read novels to calm his mind. Also, he associated the contents of novels with political agenda, and regarded them as reference for running the state. As such, King Yeongjo enjoyed reading novels not only for private tastes, but also for official purposes, making this point important. Based on such facts, King Yeongjo's love for novels presumably had considerable ripple effects on the upper-class culture of the time. In relation to this, it should be noted that the novels read by King Yeongjo have much in common with the novels listed in Prince Sado's (思悼世子) *Chinese Novel's Hoemobon* (中國小說繪模本) and the novels listed in Yun Deok-hui's (尹德熙) *Soseol gyeongnamja* (List of novels).

Putting together the above, it can be argued that we should pay new attention to the fact that one of the major reasons for the popularity of novels in Joseon in the 18th century was because King Yeongjo, as a novel mania, had a tremendous cultural effect on Joseon society.